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남성복 장식에 관한 연구

정 화 연

우송정보대 패션스타일디자인과 초빙교수

A Study on the Decoration of Men's Western Costume

Hwa-Yeon Jeong

Visting Prof., Dept. of Fashion Style Design, WooSong Information College

(2007. 5. 25. 접수; 2007. 8. 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make a historical review of changes in the structural decorations of men's costume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developing handicraft decoration techniques and sewing methods in contemporary fashion.

Their gorgeousness of collars and sleeves reached its peak along with the exaggerated expression of the human body during the Renaissance when people were free from Christian traditions of the Middle Ages and pursued human pleasures. Huge and decorative collars gave great dignity and formality to the wearer. Sleeves were slim and cuffs were small or nonexisten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Various decorated pockets had been developed since pockets began to be attached to coats in the 17th century. Pockets were at the bottom of coat in the late 17th century, but they were gradually placed much higher on the coat. Buttons began to be used as the tool for sticking fast body to clothes in the 12th century and became extremely sumptuous accessories in the 16th~18th centuries. Men's clothes were simpler and more practical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result was that decorative buttons began to disappear and metal buttons came out for practical purpose. The number of buttons worn on sleeves was also noticeably reduced.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decoration techniques could create the unique details in the each part of clothes. In order to develop high value-added products, we need to study various decoration-sewing methods and put to practical use them for creative fashion design.

Key Words: Structural decoration(구조적 장식), Handicraft decoration techniques(수공예적 장식기법), High value-added products(고부가 가치 상품), Decoration sewing methods(장식봉제방법)

Corresponding author ; Hwa-Yeon Jeong

Tel. +82-16-249-3917, Fax. +82-2-760-4484

E-Mail : jhykcd@yahoo.co.kr

I. 서론

개성을 중시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패션 시장은 점차 다원화, 세분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량 생산의 첫 단계에서 추구되었던 표준화, 규격화가 다양화에 의해 대체된 현재에는 장식의 하나의 개성적인 표현과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패션계에서는 1990년 전반을 휩쓴 미니멀리즘의 차갑고 단순한 스타일을 대신하여 인간적 감성이 더해진 장식적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1990년 후반부터는 수공예적 디테일의 장식적 패션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¹⁾ 현대 패션은 20세기 초 기능주의 조형운동의 영향으로 과잉 장식이 절제되었으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로 장식의 표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과거의 복식이 새롭게 변형되어 재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²⁾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여성복 뿐만 아니라 남성복에 있어서도 과거 서양복식에 나타난 장식들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패션이 여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으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현대의복의 원형이 완성되면서 남성에게 패션은 단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주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공유하는 21세기 사회는 개별성이 존중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창조하게 되었으며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취향도 다양하면서 감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³⁾ Fred는 현대의 남성에게 있어서 권위나 경력, 직업적 성공을 중시하던 것이 완화되면서 남성복에 여성복이 모방되는 새로운 패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는데⁴⁾ 이는 남성들이 전통적이고 단순한 패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션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복 시장도 1990년 이후 정장과 개성이 중시되는 캐릭터성 정장으로 세분화됨으로써 남성복에도 복종의 다변화는 물론 그 동안 여성복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유행의 개념이 도입되었다.⁵⁾ 최근 들어 남성 트렌드가 붐을 이루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외모와 몸매를 가꾸는데 뛰어들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성복 시장이 빠르게 볼륨화되어 여성복 시장을 육박하고 있으며 남성복의 트렌드 흐름도 훨씬 빨라졌다.⁶⁾ 2006년 가을, 겨울 남성복 트렌드를 살펴보면 개성을 강조한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지난 시즌부터 제시되고 있는 미니멀한 분위기는 2006년 가을, 겨울을 계기로 과다한 장식과 디테일이 강조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⁷⁾ 이처럼 남성복에서도 여성복 못지않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복 스타일이 나타나면서 색상이나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 그 응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때문에 남성들이 점차 의복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써가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써의 의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복의 형태나 디자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⁸⁾, ⁹⁾, ¹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남성복의 디테일에 관한 연구¹¹⁾, ¹²⁾ 등이 일부 있다. 즉 남성복의 전체적인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남성복 디자인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세부 장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복식사에 있어서 그 화려함의 대부분을 차지한 여성복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현대 의복의 근원이며 기본이 되는 남성복식에 대한 연구는 여성복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복식이 과거 서양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형태나 방법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서양복식에 나타난 남성복의 장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다양한 남성복 장식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패션에 있어서 남성복의 수공예적 장식 기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의복의 각 부분별 봉제 기법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식의 정의 및 역사

장식이라는 단어는 아도르나레(Adornare, 장식하다, 설비하다, 장식하다의 라틴어 동사)와 오르디나레(ordinare, 정리하다, 일렬에 맞추다, 정돈하다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또 이는 오르도(ordo, 일렬, 부대, 등급, 규범, 질서, 정리를 뜻하는 라틴어 명사)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장식에는 질서의 부여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장식이란 일반적으로 장식물이나 장신구 또는 장식 무늬를 말하며 음악이나 문학에도 등장하지만 장식의 전형적인 형태는 공예품 즉 가구나 직물 등의 장식물과 조형예술 건축 작품의 장식물에서 보여진다.¹⁴⁾ 장식은 19세기까지는 복잡한 모양으로 꾸미는 것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식이란 복잡한 모양을 덧붙이는 것이었으나 근대 디자인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재료, 구조, 기능이 가지는 필연적인 성격을 발휘시키거나 강조하는 것을 장식이라고 보게 되었다.¹⁵⁾ 장식이란 일상적인 사용품을 목적에 합당하게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형태화해서 거기에 인간적인 것의 인장을 각인하려는 필요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장식의 필요성은 인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빈 공백을 메우고 싶어 하는 공백공포이라고 하는 감정에 기인한다.¹⁶⁾ 장식은 장식예술과 순수예술로 구분되는데 장식예술이란 용어는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수공예가 변화를 겪기 시작할 무렵에 보조적 용어로 생겨났으며 기록상으로 1791년에 최초로 사용하였다.¹⁷⁾ 장식예술은 그 자체에 특별한 심미적 특질을 띠지 않고 물체의 디자인과 장식에 주안을 두는 예술을 말하는데, 건축물이나 가구 그 밖에 실용품을 미화시키거나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미적 효과를 고양시키기 위해 대상이 수반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조형 예술에 대한 총칭으로 복식, 장신구, 벽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예품이 그 대상이 된다.¹⁸⁾ 19세기 말 아르누보 양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디자인이란 장식을 입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당시 모

든 사물의 표면은 과거 여러 양식들을 응용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졌다. 19세기는 기존 수공 생산 방식과 산업혁명 이후 기계생산 방식에 의해 제작된 제품들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기계생산 방식과 기계제품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중세의 수공 방법에 의한 제품 생산만이 디자인 제품의 품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William Morris가 미술공예운동을 일으켰다.¹⁹⁾ 그는 산업혁명 후 단순히 기능적, 기술적이어서 공인의 작업이라 여겨졌던 공예분야도 하나의 장식적인 예술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 예술가의 상상력과 감정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²⁰⁾ 또한 그는 장식예술이란 단순하며 유기적인 것으로서 자연이나 대지에 가장 연관된 것이며 장식, 기능, 형태 사이의 자연스런 통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형태가 자연과 일치될 때 미는 생성되며 자연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추가 생성된다고 하였다.²¹⁾ John Ruskin과 William Morris 이후 아르누보 스타일의 디자이너인 Van de Velde는 대상물 자체의 구조가 장식을 통해 표현되며 장식과 형태는 장식이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긴밀해야 한다는 상징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점차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에 있어서 장식의 중요성이 확산되었고 장식이 천한 직인의 직업이 되는 것이나 소수의 상류계급에 의해서만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 대량화와 결합하여 실용 예술로서 일상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라게 되었다.²²⁾ 19세기 말의 생활에 적합한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탐색에 의해 나타난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은 아주 동적이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생동감이 느껴지며 사치스럽고 환상적이며 쾌락적이기까지 한 과잉 장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모티브를 찾아 이것을 양식화하여 실용품과 장식미술에 많이 응용하였다.²³⁾ 이후 아르누보 양식이 본격적인 근대예술운동의 서막을 열기 시작한 1890년경의 초기 모더니즘에 있어서 장식은 표피를 다루는 공예의 문제가 아니었고 장식의 문제로부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내었다.²⁴⁾ 그러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의 탐색이 시작된 20

세기 초가 지나면서 아르누보 양식은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1919년 개교한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장식이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19세기의 장식관을 벗어나 기능성을 중시한 간결한 디자인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런 기능주의적 모더니즘 운동은 건축에서부터 산업생산제품 그리고 패션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²⁵⁾ 수공예가 부활하고 과거의 여러 양식이 부흥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시 장식을 탐닉하기 시작했던 1960년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서서히 확산되었는데 조형예술분야에서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²⁶⁾ 19세기 동안 세밀하거나 장식적인 것은 여성스럽고 열등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미적 구분에 대한 포스트 모던한 파괴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보여졌던 것을 재평가할 여지를 주었다.²⁷⁾ 이러한 장식은 특히 복식에서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는데 복식 역시 기성복이 제작되기 시작한 20세기 이전까지 수공예적 생산방식에 의해 제작되었고 장식예술의 한 분야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²⁸⁾

2. 복식에 있어서 장식

1) 복식에 있어서 장식의 기원 및 의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복식을 착용하게 된 동기를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되도록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Narcissism)이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동기²⁹⁾,³⁰⁾라고 하였다. 카릴레(Carlyle) 역시 옷의 철학적 고찰에 있어서 철저한 장식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야만인들도 일단 굶주림과 복수심이 사라지면 그들의 관심사는 쾌락이 아니라 장식이었으며 미개인의 최초의 정신적 욕구는 장식함으로써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³¹⁾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신체 장식의 욕구를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장식이란 고도의 정신성, 즉 예술이며 인간 그 자체라고 보기 때문이며, 과학이 발

달되고 생활환경이 정돈되면 될수록 의복의 역할은 장식성을 많이 띠게 된다.³²⁾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장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深作光貞은 인류사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간의 몸단장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변신하고 싶은 욕망,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과 성적 전시욕이 그 원인이라 하였다.³³⁾ 또 Horn과 Gurel에 의하면 장식의 이유를 자신의 성적매력을 나타내기 위함, 자신의 힘과 용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즘, 적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테러리즘, 종교적 토템이나 부적의 역할로써의 토데미즘, 타인과의 동일시를 위함, 자아의 연장으로써 설명하고 있으며³⁴⁾, 힐레르 힐러는 그 이유를 경제적 이론, 모세이론, 소유이론, 성적 매력설, 토데미즘, 부적이론, 미적 장식설로 요약하고 있다.³⁵⁾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게 되었는데, 원시시대에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변형하는 것을 장식으로 중요시 여겼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장식의 형태는 의복으로 대체되었고 의복 장식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되었다.³⁶⁾

오늘날 인간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 단순히 기능적인 형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 의복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닌 착용자와의 사이에 정신적인 교류가 생겨 자기의 의지나 감정까지 표현하게 되며³⁷⁾, 의복에 사용되는 장식은 사회적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복식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Lipovetsky는 장식과 액세서리와 같이 복식의 세세한 부분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패션을 특징짓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취미와 개성이 표현된다고 하였다.³⁸⁾ 즉 장식적 요소는 미적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시각적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을 잘 부각시켜주며, 의상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 영역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복식에 있어서 장식의 유형

복식에 있어서 장식에 대한 유형은 학자에 따

라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Davis는 장식적 디자인을 원단 자체에 색상이나 무늬에 의해 장식하는 것, 상침, 터킹, 퀴팅, 러플, 퀴팅, 스모킹과 같은 구성 디테일에 의해 장식하는 것,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완성된 의복의 표면에 가해진 장식적인 트림 등에 의한 장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³⁹⁾

Read는 장식 예술적 범주에서 장식의 형태를 그 기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유형 즉 구조적 장식과 응용적 장식으로 분리하였다. 구조적인 장식은 다시 우연적인 것과 작위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우연적 장식은 자연적인 성질 그 자체가 장식적인 효과를 가질 경우를 말하며 작위적인 것은 가공공정에서 장식이 생길 때를 의미한다. 또 응용적 장식은 기하학적 장식과 양식화된 장식, 유기적 장식, 무늬(패턴), 조형적 장식으로 구분하였다.⁴⁰⁾ 하지만 구조적 장식과 응용적 장식의 하위 분류들이 그 구분점이 다소 모호하여 서로 복잡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⁴¹⁾ 이은영은 디자인을 구조적 디자인과 장식적 디자인으로 구분하고 장식적 디자인 기법을 다시 4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프릴, 플라운스, 보우 등은 장식적 디테일로, 파이핑, 장식 상침, 프린지, 파고팅 등은 장식적 구성으로, 턱, 스모킹, 셔링, 퀴팅, 자수, 어플리케는 표면의 장식으로, 브레이드, 스팅글과 비즈 단추와 벨트 등은 트리밍으로 구분하고 있다.⁴²⁾ 또 이순홍은 장식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된 장식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등을 구조적 장식으로, 슬릿, 태슬, 프린지, 퀴팅과 같은 직선적 장식과 드레이프, 페플럼, 대강, 레이스 등과 같은 곡선적 장식,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장식을 함께 사용한 혼합장식을 응용된 장식으로 분류하였다.⁴³⁾

이상과 같이 장식의 유형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식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적 장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장식적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주머니 등과 같이 의복의 전체 실루엣에 대비되는 각각의 부분을 구조적 장식으로, 봉제 중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식들, 즉 프릴, 보우, 파이핑, 프린지, 턱, 스모킹, 셔링, 자수 등을 응용적 장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 장식에 대한 선행 연구

장식에 관한 연구로는 슬래쉬, 비즈, 터킹이나 술장식 등 한 가지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한 의상 디자인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장식을 유형별로 나누고 복식사에 나타난 남녀 의복의 장식을 고찰한 연구와 현대의 유행 경향에 나타난 장식 기법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 봉제 기법을 이용한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먼저 장식을 유형별로 나누고 복식사에 나타난 장식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셋별⁴⁴⁾은 장식적 디자인을 기하학적 장식과 유기적 장식으로 나누어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남녀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을 사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시기별로 실루엣과 장식적 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 이순홍은 장식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장식 기법에 따라 복식사에 나타난 남녀 의복의 장식을 살펴 보았다.⁴⁵⁾ 현대의 의복에 나타난 장식 기법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나영⁴⁶⁾의 연구가 있는데 여성복의 유행경향에 나타난 장식 기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시준의 트렌드에 맞는 장식 기법을 제시하였다. 홍현선⁴⁷⁾의 현대 남성복의 디테일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복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의 디테일 표현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즐겨 사용하는 디테일을 선정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해 디자인 선호 경향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봉제를 이용한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영⁴⁸⁾은 표면 장식 기법을 퀴팅, 주름, 자수, 절개, 부착으로 나누어 각 기법의 제작 방법과 종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입체적 표면장식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4가지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장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일부 장식 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남성복 장식에 관한 포괄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현대 패션의 한 흐름으로 각 시대적 미적 양식을 반영한 장식적 디자인과 복고주의 현상이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양복식에 나타난 남성복의 장식 표현 방법을 고찰하고

자 한다. 먼저 각 시대에 따른 장식적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주머니 등의 구조적 장식의 형태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사용된 응용 장식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남성복에 사용된 다양한 장식 표현 방법은 현대 남성복에 적용될 수 있는 수공예적 장식 기법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성복의 소매 트임, 커프스 형태, 주머니 형태 등과 같은 의복의 부분별 봉제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I. 남성복 장식의 분석

1. 장식적 네크라인과 칼라

목 부위의 장식은 기능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형태를 달리하면서 복식미를 표현하게 된다. 여성은 목과 어깨를 노출함으로써 연약하고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반면, 남성은 목을 가리는 높은 밴드 처리와 넥타이 사용을 통해 외부로부터 방어를 나타내고자 하며⁴⁹⁾ 남성의 힘과 권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고대 남성복에 있어서의 네크라인과 칼라를 살펴보면 목부분을 수평으로 찢거나 둥근형 혹은 T자형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또 다른 의복 형태로는 두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는 드레이퍼리 의상이 있었는데 이 의상의 경우 목부분에 드레이프가 생기는 것이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었다. 이렇듯 고대 의상의 경우 장식적인 네크라인이나 칼라는 아직 발

달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비잔틴 제국의 복식은 금욕주의 영향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당시 복식의 기본이 되었던 일자형, T자형, U자형 또는 원형의 네크라인의 달마티카나 11세기 남녀가 입었던 블리오나 튜닉은 모두 목 부분에 자수를 놓아 장식을 하거나 자수를 놓은 천으로 완전히 둘러 장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⁵⁰⁾ 다른 장식 방법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4세기 말경부터 남녀가 함께 입던 우뿔랑드의 경우<그림1>, 귀밑까지 올라간 하이네크의 높은 스탠드 칼라는 15세기 초부터 접힌 칼라나 작고 둥근 칼라, 또는 V네크라인으로 바뀌었으며⁵¹⁾ 15세기 중엽에는 이것의 목둘레에 흰담비 가죽이나 값비싼 모피로 장식하기도 하는 등 점차 남성복에 있어서 다양한 칼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름이 정교히 잡힌 둥근 러프 칼라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14세기 이후부터 중요한 남성복으로 착용되어 온 푸르프앵은 16세기 초기에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깊게 파서 속에 입는 슈미즈의 프릴이 보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목둘레가 점점 높아졌다. 이 당시 칼라는 하나의 중요한 장식이 되어 칼라 단을 프릴로 장식하고 여러 가지 색 망사, 금사자수, 스펅글로 화려하게 꾸몄다. 화려한 자수를 한 슈미즈의 프릴이 점점 커지면서 <그림2>에서와 같이 정교한 S자 주름으로 만들어진 러프로 변하였으며 장식 러프의 부착으로 네크라인은 턱밑까지 높아지고 그 모양도 점차 프런트 오프닝 형식으로 되어 장식적



<그림1> 14C 후-15C 초 우뿔랑드. 조진애 외 2인(2001). 서양복식의 역사. p.216.



<그림2> 러프를 착용한 에섹스의 2대 백작. 1590년대.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333.



<그림3> 뽀족한 후드가 달린 스페인 풍의 케이프, 1590년.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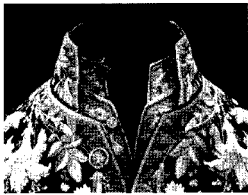
<그림4> 1527년의 슈미즈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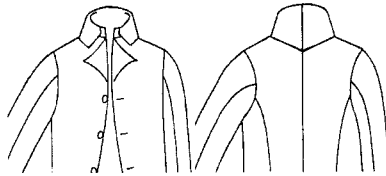
<그림5> 앙리2세의 폴링칼라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269.



<그림6> 1670-80년대 크라바트 Iris Brooke & James Laver(2000) English Costume From the 17 through the 19C. p.67



<그림7> 1780-90년대 궁중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p.75.



<그림8> 1785-1790년 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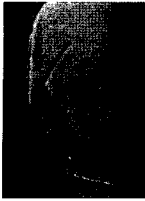
<그림9> 1800-1820년 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2005). 19C Fashion in Detail, p.35.

단추를 달게 되었다.⁵²⁾ 16세기 초기에 목깃에 달았던 프릴에서 발전한 러프는 그 크기가 점차 커져서 1580년에는 그 폭이 옷을 입을 사람의 목에서 옆으로 9인치나 멀리 뻗어나간 것도 있었다<그림3>.⁵³⁾ 이렇듯 주름진 러프의 사용으로 인해 레이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레이스의 사용은 남성의 지위와 부를 나타냈다. 16세기 중반에 볼 수 있는 슈미즈 칼라의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 스모킹 장식을 한 칼라에서 장식이 없는 칼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림4>는 1527년에 입혀진 슈미즈로 스모킹 장식이 된 칼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푸르프앵의 거창한 러프와 메디치 칼라가 작게 세운 스탠딩 칼라 위에 커다란 레이스의 폴링 칼라(Falling collar)를 붙이는 형태로 바뀌었으며<그림5>⁵⁴⁾, 차차 칼라가 낮아지다가 18세기 초에는 칼라가 없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1660년에는 목을 장식하기 위해 레이스나 천으로 앞 목에서 리본처럼 매는 크라바트가 나왔고 이것은 착용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위엄을 나타내 주었다<그림6>.⁵⁵⁾ 1710년경까지 크라바트는 계속 유행하였

으나 그 후 멋쟁이 젊은 신사들은 목에 스톡타이를 뒀으며 솔리테르(Solitaire)라고 불리는 폭이 좁은 검은 타이를 함께 매기도 했다.⁵⁶⁾ 18세기 남성복은 현대의 양복과 비슷한 테일러드 칼라와 같이 라펠이 있는 것이 등장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코트 목둘레가 다시 높아져서 좁은 스탠딩 칼라와 간단한 턴다운 칼라가 달렸던 것이 1790년대에는 더욱 스탠딩 칼라의 폭이 넓어져서 어깨로 내려잡힌 칼라와 라펠이 생겨났다.⁵⁷⁾ <그림7>의 경우 1780년에서 1790년경에 입혀진 궁중용 코트로 스탠딩 칼라 폭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그림8>은 18세기 말에 코트로 칼라 뒤쪽이 깊고 뾰족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쪽에는 작은 라펠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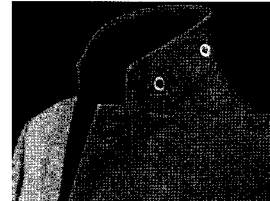
나폴레옹 제정 시대(1804-1819)의 프락 코트는 거의 목을 덮을 정도로 높은 스탠딩 칼라 형태였으며 1830년대의 웨이트 코트는 목장식이 낮아지면서 둥글어지고 롤링칼라가 달렸고 이런 경향은 1840년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1880년대에는 오늘날의 남성복 모드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색크 슈트나 턱시도 등 디너 재킷이 나



<그림10> 1815-1820년 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139



<그림11> 1860-1900년 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139.



<그림12> 1860-1900년 코트 칼라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35

왔으며, 이 당시 모닝코트는 다소 넓은 테일러드 칼라에 윗 칼라를 벨벳으로 재단하였다.⁵⁸⁾ 이처럼 19세기에는 다양한 칼라 형태가 등장하면서 폭이 넓은 스탠딩 칼라나 롤칼라, 라펠이 있는 것은 너치가 M자형 혹은 V자형으로 된 칼라 등이 나타났다<그림9>, <그림10>, <그림11>, <그림12>.⁵⁹⁾

이상과 같이 칼라와 넥라인 부분은 자수, 프릴, 레이스, 스모킹, 장식용 단추구멍 등에 의해 장식되었으며, 고대와 중세에는 단순했던 남성복의 칼라와 넥라인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거대한 러프를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대한 과장과 확대가 극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체에 대한 과장은 점차 완화되면서 칼라의 형태가 부드럽게 변화하였으나 높은 스탠딩 칼라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크라바트를 목에 두름에 의해 목을 감싸주고 강조하는 형태로 이용되면서 칼라와 넥라인은 착용자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매와 커프스

이집트에서 남녀가 입었던 칼라시리어나 하이크의 경우 잔주름이 잡힌 소매모양이 있기는 하나 따로 봉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의복의 몸판에서 이어진 형태이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인과 앗시리아인들의 튜닉에는 짧은 소매가 달려 있으나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인의 국민복인 캔디스는 어깨에서 손목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소매이며 겨드랑 밑에 주름을 모아 따로 고정시켜 입었고 <그림13>, 코트의 소매를 입체적으로 붙인 봉제된 의복이 처음 등장하였다.⁶⁰⁾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천을 몸에 두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드레이프 형태가 나타나도록 착장하였으므로 따로 봉제된 소매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후 11세기 남녀가 입은 블리오는 소매가 길고 깔때기



<그림13> 캔디스 소매
신상옥(1989),
서양복식사. p.37.



<그림14> 14세기 티핏소매
조진애 외 2인(2001)
서양복식의 역사. p.215.



<그림15> 1380년대 백파이프형
소매, Margot H.H. & Peter A
B.(1992). The Evolution of Fashion.
p35.



<그림16> 14세기 후-15세기 초
우블랑드 소매.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193.

처럼 넓게 퍼지는 형태를 나타냈으며 12세기 로마네스크 시대 이후 동양의 영향을 받은 소매는 점차적으로 인체의 곡선미를 나타내는 몸에 꼭 맞는 의복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냈다.⁶¹⁾ 14세기에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소매가 등장하였는데, 남녀가 함께 입은 꼬따르디의 소매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단추로 채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3피트나 되는 길다란 장식 리본인 티핏이라는 끈을 달았으며 <그림14>, 후기로 갈수록 소매가 <그림15>에서와 같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는 팔에 꼭 맞고 그 밑으로는 크게 부풀어 올라 마치 백 파이프처럼 생긴 험렁한 소매가 되었다.⁶²⁾ 또 푸르프앵은 초기엔 꼭 끼는 소매였으나 차차 소매 팔꿈치 부분에 주름을 넣어 윗부분을 부풀린 형태로 변화하였으며⁶³⁾ 우벨랑드는 <그림16>에서 보듯이 소매가 지나치게 길어 마루까지 닿기도 하였으며 깔때기형으로 넓고 가장자리가 꽃잎, 잎사귀 모양, 스칼럽 모양, 톱니바퀴 모양 등 다양하게 재단되었다.⁶⁴⁾ 15세기 전반에 이르러 우벨랑드의 소매 형태가 좀 더 다양해졌는데 즉 이전에 나타났던 깔때기형 소매와 손목과 어깨까지 넓이가 비슷한 실린더형의 소매, 팔꿈치에서 커프스처럼 접혀진 짧은 소매, 백 파이프형 소매, 행잉 슬리브 등이 나타났다.⁶⁵⁾ 이처럼 중세 말부터는 기이한 형태의 소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소매 부분에 장식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장성과 중세에 단혔던 세계에서 해방되어 인간 부흥 정신을 구상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슬리브 역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는데 가장 특이한 소매 장식은 슬래시

와 퍼프를 이용한 독특한 형태였다.⁶⁶⁾ 이 당시 푸르프앵의 소매는 어깨와 함께 패드를 넣어 부풀려 남성미를 과장했고 갖가지 모양의 슬래시를 만들어 장식하였다. 하지만 점차 소매가 복잡해지면서 구성과 착용이 불편해져서 <그림17>과 같이 진동에서 끈과 단추로 결합시켰으며 이 부분을 미화하기 위해 소매산을 가리는 작은 날개형태(epaulette)를 달아 슬래쉬, 보석, 자수로 장식하였고, 소매산에 장식소매인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를 달기도 했다.⁶⁷⁾ 갈수록 푸르프앵의 소매 종류가 한층 많아지면서 퍼프, 벌룬, 벌키 형의 모양으로 화려함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 중 가장 기발한 소매는 지고(gigot sleeve)로 주로 상류 남녀간에 유행하였다.⁶⁸⁾ 르네상스 시대의 남자 커프스는 여자에 비해 단순한 형태였는데 <그림17>에서와 같이 안에 입은 슈미즈의 러플장식이 보이도록 하거나 좁은 소매 끝에 레이스로 장식된 커프스를 달기도 하였다.⁶⁹⁾ 17세기 초 푸르프앵은 꼭 끼는 것, 팔꿈치까지 부풀리고 손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 슬래쉬가 있거나 길이로 짜여진 것 등이 있었으며 <그림18>, 1640년 경 슬래시는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고 소매통이 넓어지면서 넓적한 커프스를 달았다.⁷⁰⁾ 17세기 소매의 특징은 슬래쉬, 루프와 리본으로 장식된 것이었으며, 소매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커프스의 등장인데 넓은 것 가운데는 6인치나 되는 것도 있었고 대개는 레이스로 장식되었다.⁷¹⁾ 1650년 이후 푸르프앵의 소매는 아주 짧아져서 <그림19>와 같이 셔츠가 밖으로 보였으며, <그림20>은 1684년경의 새로운 코트 커프스로 그것은 소매 안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좁아



<그림17> 에폴렛과 슬래시 장식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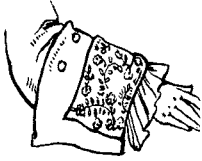
<그림18> 1631년 슬래시가
있는 소매. 백영자, 유효순(1998)
서양의 복식문화. p.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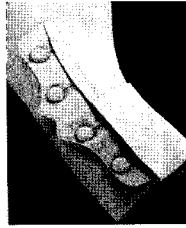
<그림19> 1665년 소매
Margot H.H. & Peter A B. (1992).
The Evolution of Fashion.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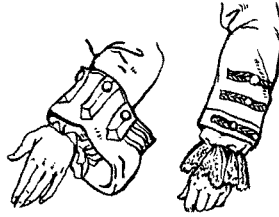
<그림20> 1684년 커프스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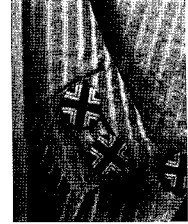
<그림21> 1700-10년대 커프스
Iris Brooke & James Laver
(2000). English Costume From
the 17 through the 19C. p.95.



<그림22> 1750년대 커프스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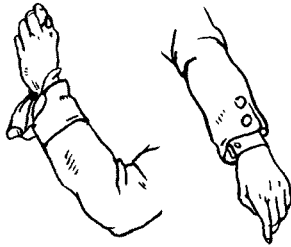
<그림23> 1760-70년대 커프스
Iris Brooke & James Laver (2000).
English Costume From the
17C through the 19C. p.143.



<그림24> 1780년대 커프스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85



<그림25> 1780년대 커프스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85.



<그림26> 1790-1800년대 커프스
Iris Brooke & James Laver (2000).
English Costume 19C. p.158.



<그림27> 레그 오브 머튼 소매
Black, J.A. & Madge G.(1997)
A History of Fashion, p.80



<그림28> 1859년경 소매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525.

지며 팔꿈치 부분에서는 팔목까지 늘어지도록 많이 접힌 원형의 플레이어로 감자기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⁷²⁾ 18세기 전기의 소매 형태는 넓적한 커프스가 달린 것<그림21>과 소매통이 잘 맞고 소매 끝에 트임이 있고 단추가 달려 있는 것<그림22>이 있었으며 소매 끝으로 셔츠의 러플이 보이게 입었다. 그러나 18세기 후기로 갈수록 넓적한 커프스는 없어지고 폭이 좁은 것이나 손목에 잘 맞는 것이 1770년대 이후 유행되었다.

<그림21>에서 <그림25>까지는 18세기의 시기별 다양한 커프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후기로 갈수록 점차 커프스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고 자수, 브레이드, 단추와 단추구멍 등을 통해 다양하게 장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6>은 1790-1800년의 소매로 커프스가 사라졌으며 18세기 초에 비해 상당히 단순해졌고 단추의 개수도 줄어들었다. 낭만주의 시대인 1820년대의 테일 코트는 <그림27>에서와 같이 여성들의 X자형 실루엣에 영향을 받아 어깨를

넓히는 양다리형의 소매가 달리기도 했으나, 1830년 이후로 소매의 어깨 주름이 차츰 없어졌으며 1859년경에 나타난 코트의 소매통은 다시 넓어지고 단순한 형태를 나타냈다<그림28>.

소매와 커프스는 칼라나 네크라인에 비해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 변화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많은 장식이 사용되었다. 14세기 우플랑드 소매를 시작으로 소매의 장식성이 한층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프릴, 리본, 보우, 루프, 레이스, 자수, 슬래쉬, 스팅글, 브레이드 등을 이용하여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주머니

주머니는 초기에는 물건을 담기 위한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다양한 형태와 값비싼 재료에 의해 의복 자체에 매우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되었다. 11세기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풍습 중 하나가 주머니를



<그림29> 1380-1390년경 주머니. 조진애 외 2인(2001). 서양복식의 역사. p.230.



<그림30> 1455년경 주머니. 조진애 외 2인(2001). 서양복식의 역사. p.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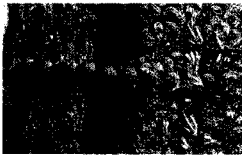
<그림31> 1550년 코드피스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p.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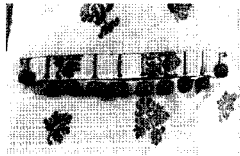
<그림32> 1581년 행잉슬리브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p.188.

차는 것이었는데, 초기에는 십자군이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중세기 남녀에게 주머니가 유행하게 되었다.⁷³⁾ 12세기에는 주머니의 크기나 형태,

장식이 다양해 졌으며 14세기에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⁷⁴⁾ <그림29>는 14세기 경의 주머니의 모습으로 벨트에 매달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림30>



<그림33> 1673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그림34> 168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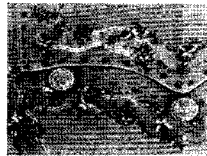
<그림35> 1730-4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99.



<그림36> 177 Avil Hart & S (2000). Fashion from the 17th p.105.



<그림37> 1760-7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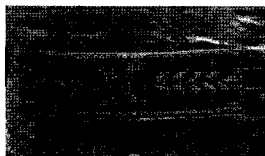
<그림38> 177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47.



<그림39> 178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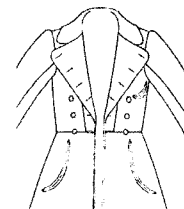
<그림40> 178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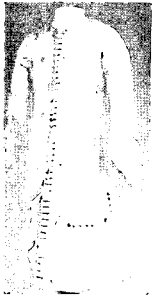
<그림41> 1790년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09



<그림42> 1810-25년대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156.



<그림43> 1830년대 주머니.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82.



<그림44> 1680년 주머니 위치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401.



<그림45> 1693년 주머니 위치
Jack Cassin-Scott(1997).
The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Costume and Fashion. p.62.



<그림46> 1695년 주머니 위치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281.



<그림47> 1731년 주머니 위치
조진애 외 2인(2001).
서양복식의 역사. p.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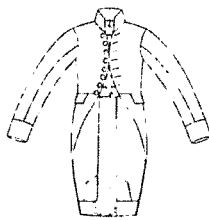
은 15세기 주머니의 모습으로, 이 당시 역시 벨트에 어김없이 자루 모양의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의 크기는 다양했으며 귀족들의 것은 대개 보석으로 장식된 값비싼 천으로 만들어졌다⁷⁵⁾. 15세기 말에 도입된 코드피스는 처음에는 짧은 더블릿만을 입었을 경우 실용적인 이유에서 하ಗೆ 되었으나 후에 대개는 저킨을 통해 밖으로 나왔으며 호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 불룩하게 만들어졌다<그림31>⁷⁶⁾ 또 푸르푸앵의 경우 <그림32>과 같이 행잉 슬리브가 달려기도 하였으며 이 장식 소매는 끝이 막히기도 하여 지갑이나 손수건을 보관하는 포켓의 역할을 하였다.⁷⁷⁾

17세기에 이르러 코트에 주머니가 만들어졌는데 1670년대 초기 코트의 경우 <그림33>과 같이 플랩이나 웰트가 없으며 절개된 형태의 가로로 난 주머니만 달려있었고, 그 위치는 보통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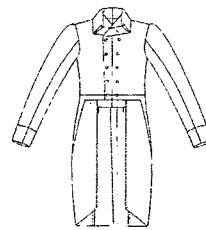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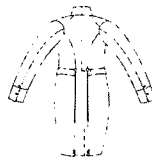
았는데 코트 밑단으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16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로로 난 주머니는 비로소 그 외양이 만들어졌는데⁷⁸⁾ <그림34>와 같이 여러 개의 단추가 달려있었다. <그림35>에서 <그림41>까지는 18세기의 다양한 주머니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식의 방법이 다양하여 자수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테이프를 장식하는 방법, 단추와 단추구멍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각종 보석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스팅글이나 비즈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 등 많은 변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42>와 <그림43>은 19세기의 주머니 형태로써 전자는 헛트 코트의 뒤쪽 주머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플랩 아래에 또 다시 작은 플랩이 달려 있고 단추로 고정하여 안에 들은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43>의 프락 코트의 주머니는 가슴부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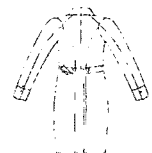
<그림48> 1786년 주머니 위치
Jack Cassin-Scott(1997).
The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Costume and Fashion.p.83.



<그림49> 1830-50년 주머니 위치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36.



<그림50> 1870-75년 주머니 위치
Avil Hart & Susan North (2005),
19C Fashion in Detail, p.30.



있는 것과 허리아래 쪽에 있는 것 모두 초승달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디자인에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17~18세기 코트의 주머니 달리는 위치도 점차 변화를 보이면서 옷 끝단 바로 위에서 허리 바로 밑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그림44>, <그림45>에서와 같이 17세기 말에는 허리선 아래에 낮게 달렸던 주머니가 1695년 경에는 <그림46>에서와 같이 허리 쪽으로 약간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주머니가 점차 허리선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림47>, <그림48>.

또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남자 코트에는 앞쪽을 주머니 길이만큼 절단하여 끼워 넣은 삼입식 주머니가 허리정도에 양쪽으로 나 있었으며 주머니에는 플랩이 달려 있었다.⁷⁹⁾ 1740년경 이후로는 앞 중심의 허리선 아래가 휘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는 코트의 앞자락을 잘라낸 것 같은 테일 코트를 일반적으로 입었다. <그림49>, <그림50>은 19세기 코트의 모습으로 이 당시에는 그림과 같이 앞쪽이 비스듬히 재단되거나 허리선과 평행하게 재단된 코트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주머니는 뒤쪽으로 위치가 많이 이동되어 있거나 아예 뒤쪽에 달리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주머니의 장식과 형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17~18세기 동안 자수, 단추, 단추구멍, 장식용 테입, 비즈, 스팅글 등에 의해 주머니가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였다. 또한 주머니의 위치도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코트의 밑단 근처에 위치하던 주머니가 차차 허리선 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의 남성복과 유사한 위치로 바뀌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4. 단추

11세기경 남녀가 함께 입었던 윗몸이 꼭 끼는 형태인 블리오는 뒷 중심을 여미기 위해 단추나 끈이 사용되었으며, 12세기에 이르러 몸에 맞는 복식이 등장하면서 거의 피할 수 없는 액세서리로 단추가 사용되었다. 중세 복식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추는 복식에 부착된 편편한 원반형 물건이거나 돌출물로 단순히 장식적인 목적에서 쓰여졌고 이것은 어깨부분에서 팔꿈치 또는 팔꿈치에서 손목에 달렸으며 당시 복식을 여미기 위해 사용된 것은 끈이었으나 1300년경에 단추가 여미를 위한 끈을 대신하여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버튼홀이 등장하였다.⁸⁰⁾ 14세기 남성복인 꼬파르디는 <그림51>에서와 같이 앞 중앙선에 일직선으로 장식적인 단추를 달았으며, 푸르프앵은 14세기 중엽부터 앞이 트이고 단추로 여미는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14세기 중엽에 동방풍의 카프탄 스타일과 단추가 도입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그림52>처럼 앞 중심 트임에 단추가 촘촘히 달리기 시작했고 타이트한 소매 역시 팔꿈치부터 단추가 달리게 되었다.⁸¹⁾ 16세기는 펄 에이지(pearl age)라 부를 정도로 단추나 장신구에 보석이 많이 사용된 시기로, 이 당시 상체가 꼭 맞는 푸르프앵이 유행하자 앞을 단단히 여밀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단추는 상체를 조이는데 효과적이었고 <그림53>, 그 중 화려한 보석단추는 장식적인 아름다움도



<그림51> 1334-66년 꼬파르디의 단추, 블랑쉬 페인(1997). 복식의 역사, p.213.



<그림52> 1364년 푸르프앵의 단추, 신상욱(1989). 서양복식사, p.134.



<그림53> 1550년 단추,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449번, p.225.



<그림54> 1670-80년 단추장식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669번 p.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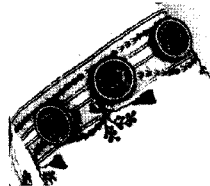
<그림55> 1660년 단추장식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571번 p.259.



<그림56> 1770-1777년 코트에 대한 만평
신상욱(1989). 서양복식사 p.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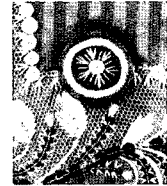
<그림57> 1770년 코트 단추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27.



<그림58> 1770년 코트 단추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27



<그림59> 1775-80년 코트 단추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19



<그림60> 1790년 코트 단추
Avil Hart & Susan North (2000).
Fashion in Detail from the
17th and 18th C, p.119

더해 주었다. 단추의 재료로는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금, 은, 놋, 철, 뿔, 뼈, 유리, 형철 등 다양하였으며 단추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아 장식효과를 냈다.⁸²⁾ 16세기가 되자 단추의 편리함은 더욱 인식되어 남성복 구성상 중요한 것이 되어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지고 널리 보급되었다.⁸³⁾

17세기에 이르러 단추, 보우, 레이스 장식이 많아졌는데 이 시대에 사용된 커프스와 앞여밈, 포켓의 단추는 잠그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식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다.⁸⁴⁾ 1670년경부터 널리 이용된 쥐스토 코트는 <그림54>에서와 같이 앞트임에 단추와 단추구멍이 촘촘히 달렸고 금, 은실을 넣어 만든 끈 장식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금, 은사를 넣어 만든 색 장식은 권위자들에게는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식이 되었다. 끈 매듭으로 만든 단추 장식은 원래 터키 의상의 특징으로 군대나 관청의 계급표시로 사용되었으며⁸⁵⁾ 이 의복은 착용 시 보통 단추를 여미지 않고 풀어 놓아서 안에 단

추를 촘촘히 끼운 조끼가 보이도록 하였다.⁸⁶⁾ 17세기 후반에는 상의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리본 장식이 보이게 되었고 앞여밈에는 작고 아름다운 단추가 촘촘히 달렸는데 이러한 단추는 장식적인 동시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55>.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입혀진 남성 코트는 앞의 오프닝에는 값진 단추를 달았으며 단추의 디자인도 다양하여 칠보나 금, 은 또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장면을 유리에 세공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단추만이 의상의 사치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매우 값진 것을 사용하였는데⁸⁷⁾ 코트 단추가 조끼 단추보다 더 컸으며 단추에는 금속단추, 싸개단추, 보석단추 등을 사용하였다. 전기에는 단추 크기가 둥 형태이던 것이 후기로 갈수록 납작해지고 크기가 커져 1775~1788년에는 <그림56>과 같이 단추의 지름이 2인치가 넘는 매우 큰 단추가 유행되어 시사 만평의 소재가 될 정도였다.⁸⁸⁾

<그림57>에서 <그림60>은 18세기의 단추 장식으로서 장식 테이프와 비즈 등을 함께 단추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한층 배가 시켜주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남자복식은 간소화되었으며 코트 뒤쪽에 두 개의 슬릿을 잡아 플리트를 넣었고 각 플리트의 위쪽 끝에는 크고 납작한 단추로 장식하였다.⁸⁹⁾ 또 19세기 초 20년간은 남녀 복식이 군복의 영향을 받아 코트나 브리치스, 웨이스트 코트, 가터에 금속단추를 달았는데 코트 라펠에는 6~8개의 단추가 달렸고, 브리치스에는 무릎근처에 세 개의 단추가 달렸으며 당시 댄디들은 금단추를 발목 위쪽에 달기도 하였다.⁹⁰⁾ 이처럼 단추가 생겨난 초기에는 끈을 대신하여 몸에 꼭 맞는 의복을 여미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단추가 기능적 목적보다는 장식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서 착용자의 권위와 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칼라와 넥라인, 소매, 주머니 그리고 단추의 장식을 시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가장 그 장식이 있어서 화려했던 시기는 중세적 기독교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적 즐거움을 찾으려던 근세였으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차차 남성복이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근세 시대에 사용되었던 장식 방법은 그 형태 및 장식에 사용된 재료 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였으며,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그리고 주머니와 같은 구조적 장식들이 기능적 목적보다는 장식을 목적으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 남성들이 외모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거 전통적이고 단순한 패션관에서 벗어나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최근 남성복 트렌드에 있어서 수공예적 장식이 강조된 스타일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수공예적 장식은 과거 서양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형태나 방법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남성복 장식의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패션에 있어서 남성복의 수공예적 장식 기법 개발과 의복의 각 부분별 장식 봉제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칼라와 넥라인, 소매와 커프스, 주머니, 단추 등과 같은 구조적 장식을 중심으로 남성복 장식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식적 넥라인과 칼라의 경우 고대에는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정교한 러프 칼라가 유행하면서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러프칼라는 바로크 시대의 폴링칼라로 대체되면서 다소 과장된 형태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테일러 칼라와 같은 라펠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19세기에는 다양한 칼라가 등장하였으며 M자형 혹은 V자형 등의 라펠 너치가 생겨났다. 칼라는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으로 착용자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매와 커프스는 고대에는 따로 봉제되지 않은 드레이프형의 소매가 많았으나 14세기를 기점으로 다양한 소매가 나타났다. 특히 우뿔랑드는 깔때기형 소매로 가장자리가 다양하게 재단되었으며 15세기 초에 이르러 그 소매 종류가 더욱 많아졌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소매에 패드를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하였으며 슬래시와 퍼프로 장식하였고, 바로크 시대에는 루프와 리본으로 그 화려함을 더하였으며 이 시기에 커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자수나 브레이드, 단추와 단추구멍을 이용하여 커프스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커프스가 사라지고 소매가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3. 주머니는 11세기 경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이 사용하던 것이 일반인에게 보급되어 중세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귀족들의 것은 값비싼 천으로 만들어졌다. 의복에 봉제된 주머니는 17세기 코트에 주머니가 달리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장식 방법이 다양하여 자수를 이용하는 방법, 단추와 단추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 장식테이프를 두르는 방식 등 많은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머니 위치도 초기에는 코트 밑단 근처에 달렸던 것이 차차 허리선 근처로 이동되었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 허리선에 절개선을 넣어 그곳에 주머니를 끼워 박기도 했다.

4. 12세기 경 몸에 밀착되는 의복이 나타나자 피할 수 없는 악세사리로 단추를 사용하게 되었

다. 초기에는 단추가 여밈을 목적으로 앞 중심 혹은 뒷 중심에 달리던 것이 16-18세기에 이르러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장식적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단추를 달아 장식하였다. 프랑스혁명 이후로 남성복에는 금속단추가 달리게 되면서 점차 그 화려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의복 각 부분의 구조적 장식을 살펴 본 결과 칼라나 소매의 경우 칼라의 너치나 뒷 중심 부분의 형태 개발, 커프스 디자인 개발, 다양한 소매 트임의 개발 등과 함께 자수, 비즈, 브레이드와 같은 부자재를 활용하면 좀더 독창적인 장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주머니의 경우 17-19세기경에 의복의 일부분으로써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곳으로 복식사에서 보여지는 여러 주머니나 플랩의 디자인들을 현대 감각에 맞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추는 과거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값비싼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의복의 많은 부분에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 단추나 단추구멍의 경우 다양한 부위에 활용 가능한 부자재로써 칼라나 앞여밈, 커프스 등에 장식테이프나 브레이드, 레이스, 비즈 등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면 독창적이고 새로운 장식이 이루어 지리라 여겨진다. 이와 같이 실용과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식적 디테일로써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식 봉제 기법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의상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지영 (2004). 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 - 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 최해주 (2005). 서양복 장식의 초기 유형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6(1)*, p.353.
- 이경희, 김윤경 (2004). *남성패션디자인* 서울: 교문사, pp.3-4.
- Fred Davis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4-54.
- 정은정 (2003). 현대 남성복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 -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잡지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한국섬유신문. 남성복, 위버, 크로스 색슈얼 뜬다. 2006년 3월 7일.
- 한국섬유신문. 06/07 F/W 남성복 트렌드 - 개성 강조한 스타일 급부상. 2006년 2월 21일.
- 김은숙 (2000). 한국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하 (1994).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1991). 서양 남성복의 유행변화 - 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1994). 서양 남성 재킷의 디테일에 관한 연구 - 19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선 (1997). 현대 남성복의 디테일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errman Bauer. 홍진경 역 (1998). *미술사학의 이해*. 서울: 시공사, p.72.
- W. HenKmann & K. Lotter. 김진수 역 (1998). *미술사전* 서울: 예경, p.57.
- 박선희(편) (1990). *디자인 사전* 서울: 미진사, p.249.
- Herbert Read. 정시화 역 (2001).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p.49.
- 이연상(편) (1994).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p.628.
- 박대정(편) (1994). *현대 디자인 용어사전* 서울: 디자인오피스, pp.241-242.
- 박숙현 (2004). *패션디자인론* 서울: 예학사, p.22.
- 김민자 (1988). 아르데코양식과 Paul Poiret의 의상디자인. *생활과학연구 13*, pp.65-68.
- 김민자 (2004). Op. cit., p.52.

- 22) 임석재 (1997). *장식과 구조미학 : 불어권 아르 누보건축*. 서울: 발인, pp.279-281.
- 23) 박숙현 (2004). Op. cit., p.25.
- 24) 임석재 (1997). Op. cit., pp.279-281.
- 25) 박숙현 (2004). Op. cit., p.28.
- 26) Ibid., pp.32-34.
- 27) Juliet Ash & Elizabeth Wilson(eds) (1992). *Chic Thrills: A Fashion Reader*. London: Pandora Press, p.5.
- 28) 박셋별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 29)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A History of Fashion, 세계패션사1*. 서울: 자작아카데미, p.16.
- 30) J.C. Flugel & B. A. D.Sc. (1976).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The Hogarth Press, p.17.
- 31) 오희선 (2000).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p.16.
- 32) 조규화 (1988).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78.
- 33) 深作光貞. 신영선 역 (1992). *衣의 文化人類學*. 서울: 교문사, pp.9-15.
- 34) Horn, J. M. & Gurel, M. L.. 이화연 외 역 (1988). Op. cit., p.38-46.
- 35) Hiler, Hilaire (1929). *From Nudity to Raiment*. London: W.&G. Foyle, pp.1-13.
- 36) 이순홍 (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22.
- 37) 遠藤教 三 (1970). *服装とその美學*. 東京: 造形社, p.17.
- 38) Gilles Lipovetsky. 이득재 역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p.35.
- 39) Marian L Davis (1987). *Visual Design in Dress*. N.J.: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pp.23-25.
- 40) Herbert Read. 정시화 역 (2001). *디자인론*. 서울: 미진사, pp.179-185.
- 41) Ibid., pp.179-185.
- 42) 이은영 (1987). Op. cit., pp.263-280.
- 43) 이순홍 (2003). Op. cit., p.25.
- 44) 박셋별 (2000). Op. cit., pp.118-121.
- 45) 이순홍 (2003). Op. cit., pp.43-46.
- 46) 이나영 (2000). 패션의 장식 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7) 홍현선 (1997). Op. cit.
- 48) 김지영 (2004). Op. cit.
- 49)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p.106-107.
- 50) 백영자, 유효순 (1998).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pp.117-119.
- 51)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151.
- 52) Ibid., pp.185-186.
- 53) Blanche Payne (1997).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글방, pp.332-333.
- 54) 백영자, 유효순 (1998). Op. cit., p.193.
- 55) Douglas A Russell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p.260.
- 56)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A History of Fashion, 세계패션사2*. 서울: 자작아카데미, p.25.
- 57) 신상옥 (1989). Op. cit., pp.222-223.
- 58) Douglas A Russell (1983). Op. cit., p.373.
- 59) 신상옥 (1989). Op. cit., p.223, p.254, p.269.
- 60) 조진애, 손희정, 이해진 (2001). *서양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73.
- 61) 김영자 (1998). Op. cit., pp.125.
- 62)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pp.148-149.
- 63) Franc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Abrams, INC., Publishers, p.196, p.204.
- 64) 조진애, 손희정, 이해진 (2001). Op. cit., p.216.
- 65) C.Willett Cunnington, Phillis Cunnington (1973). *Handbook of English Mediaeval Costume*. London: Great Britain. p.102-103.
- 66) 김영자 (1998). Op. cit., pp.125-126.
- 67) 정홍숙 (1999). Op. cit., pp.186-187.
- 68)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9).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172.

- 69) 조진애, 손희정, 이해진 (2001). Op. cit., p.268.
- 70) 신상옥 (1989). Op. cit., p.189.
- 71)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Op. cit., p.224.
- 72) Blanche Payne (1997). Op. cit., p.401.
- 73) Ibid., p.127.
- 74) C.Willett Cunnington, Phillis Cunnington (1973).
Great Britain. Op. cit., p.34.
- 75)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Op. cit., p.165.
- 76) Ibid., p.183.
- 77) 정홍숙 (1999). Op. cit., p.187.
- 78) Blanche Payne (1997). Op. cit., pp.396-400.
- 79)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Op. cit., p.55
- 80) Kathe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1940).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Bennett.
pp.533-535.
- 81) 정홍숙 (1999). Op. cit., p.150.
- 82) 정홍숙 (1999). Op. cit., p.186.
- 83)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9). Op. cit., p.175.
- 84) Ibid., pp.563-564.
- 85) Ibid., pp.219-220.
- 86) 정홍숙 (1999). Op. cit., pp.219-220.
- 87) Ibid., p.257.
- 88) 신상옥 (1989). Op. cit., p.224.
- 89) Black, J.A. & Madge G., 윤길순 역 (1997).
Op. cit., p.54.
- 90) Katherine Morris Lester and Bess Viola Oerke
(1940). Op. cit., p.479.